

※ 본초 주요암기

1. 四氣五味

1) 사기

사기	특성	본초
온	강장보익	인삼, 황기, 백출 산약 (보익)
	개위	창출, 후박, 광곽향 (방향화습)
	통경락	독활, 모과 (거풍습)
	활혈	천궁
	지사	가자
	산한	마황, 계지, 생강, 총백
열	온리	오수유
	발열 · 산한 · 발한	부자, 육계
	흥분자극	해구신
량	보음	맥문동, 사삼
	청허열	은시호
	량혈지혈	대계, 소계, 지유, 괴화
	발산풍열	우방자, 박하, 국화
한	청열사화	석고, 지모
	청열조습	황금, 황련, 황백
	청열량혈	서각, 생지황
	청열해독	금은화, 연교
	청허열	청호, 지골피
	량혈지혈	촉백엽
	공하약	대황, 노회, 망초
	용토약	여로, 과체, 상산

cf) 치법 배합 운용

증상	병용법	대표처방
상열하한 상한하열	온청병용	황련탕, 연리탕
내외옹실 표리급	한하병용	방풍통성산
정기허 사기실	공보병용	도씨황룡탕, 증액승기탕
비위허 소화불량 음식부절 식적	소보병용	지실소비환

2) 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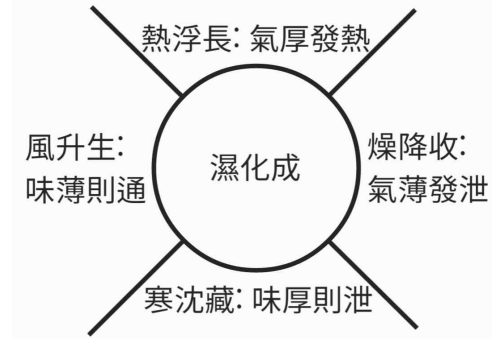
오미	특성	본초
산 (收, 澁)	수렴지한	오배자, 오미자
	수렴지혈	선학초, 백급
	삼장지사	석류피, 적석지
	삼정지대	금앵자, 상표초
	생진개위소식	오매, 오미자
	진액모상근련	모과
	수렴	백작약
	안회	오매
고 (燥, 瀉, 堅)	통설	대황 -> 熱結便秘
	강설	행인 -> 氣逆喘咳
	청설	치자 -> 熱盛心煩
	조습열	항련
	조한습	창출
	견음	황백, 지모
감 (補, 緩, 和)	보기(甘溫)	인삼, 황기
	양음생진(甘寒)	사삼, 맥문동, 석곡
	화중, 완화독성, 완급지통	감초
	조화제약	감초, 대조, 봉밀
	윤폐화담	과루, 패모
	윤장통변	화마인, 봉밀
	감운	맥문동, 천문동, 옥죽, 숙지황, 마자인
신 (散, 潤, 橫行)	발산표사	마황, 계지, 형개, 박하
	행기리기	목향, 향부자, 진피
	활혈거어	천궁, 홍화
	신양부조 증등기화	부자, 육계
함 (軟, 下)	사하	망초
	연견산결	모려
	보신강장	녹용, 자하거, 합개
	량혈(涼血)	서각, 현삼
담	-	복령, 의이인, 택사, 등심초
삽	-	용골, 가자

2. 升降浮沈과 氣味厚薄

- <素問 陰陽應象大論>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氣 薄則發泄 厚則發熱”

=> 氣味로 陰陽을 정하고, 氣味の 厚薄으로
한 번 더 陽 陰의 陰과 陰 陽의 陽으로 나누고
나아가 泄, 通, 發泄, 發熱로 기능을 개괄



<아래표의 본초 분류는 東醫寶鑑 기준>

風升生: 味薄則通	방풍, 승마, 강활, 시호, 갈근, 위령선, 세신, 독활, 백지, 길경, 고본, 천궁, 만형자, 마황, 천마, 형개, 박하, 시호 등
熱浮長: 氣厚發熱	부자, 오두, 건강, 생강, 고량강, 육계, 계지, 정향, 후박, 목향, 오수유, 회향, 현호색, 홍화 등
濕化成	인삼, 감초, 당귀, 숙지황, 반하, 창출, 백출, 진피, 청피, 곽향, 봉출, 삼릉, 아교, 가자, 행인, 도인, 맥아, 자초, 소목 등
燥降收: 氣薄發泄	복령, 저령, 택사, 활석, 구맥, 차전자, 목통, 등심초, 오미자, 상백피, 작약, 서각, 천문동, 오매, 목단피, 지골피, 지각, 연교, 지실, 맥문동 등
寒沈藏: 味厚則泄	대황, 황금, 황련, 황백, 용담초, 석고, 지모, 생지황, 방기, 인진호, 모려, 과루근, 현삼, 치자, 천련자, 지유 등

3. 藥物의 七情 / 配伍 / 禁用、慎用

- 한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 藥物 配合 時 藥物 相互間의 작용기전

- 1) 單行: 한가지의 藥物로 疾病을 治療하는 것. 獨蓼湯, 獨附湯
- 2) 相須: 效能이 유사한 藥物을 配合했을 때 協同작용을 일으켜 원래의 功效 增加.
(君藥과 臣藥이 되어 서로 보조하여 효과 增強 - 둘다 主)
- 3) 相使(我之佐使): 두 藥物이 配伍時 한 藥物이 다른 藥物 主作用을 補助(主從관계).
- 4) 相惡(奪我之能): 藥性を 合用 時 상호 견제하여 藥物의 작용을 감소 (人蔘惡萊菔子).
- 5) 相畏(受彼之制): 藥物을 合用 時 한 약물의 毒性, 烈性反應을 다른 약물이 抑制, 減少
(半夏畏生薑-半夏의 입장), (人蔘畏五靈脂)
- 6) 相殺(制彼之毒):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毒性을 없애는 것. (生薑殺半夏-생강의 입장)
- 7) 相反: 藥物을 合用 後 인체에 강렬한 毒性반응이나 副作用을 일으키는 것.

- 藥性が 강해지는 경우 : 相須 相使 / 藥性が 약해지는 경우 : 相惡
- 毒性이 약해지는 경우 : 相畏 相殺 / 毒性이 강해지는 경우 : 相反

- 六陳藥

반하, 지실, 오수유, 진피, 마황, 낭독 (반지없이 오진마랑) + 원화

- 八新藥

소엽, 박하엽, 국화, 도화, 적소두, 택란 괴화, 관동화 (소 박 국 도 적 택 괴 관)

- 十八反

오두 反 반하 과루 패모 백령 백급 (오반과 패백)
 감초 反 원화 대극 감수 해조 (감초는 원대감을 싫어해)
 여로 反 오삼[인 단 현 사 고] 세신 작약 (여로는 오삼과 세작)

- 十九畏

정향 畏 울금 / 아초 畏 삼릉 / 육계 畏 적석지 / 인삼 畏 오령지 /
 유황 畏 박초 / 수은 畏 비상 / 낭독 畏 밀타승 / 파두 畏 견우 / 천오 초오 畏 서각

- 임신금용약

노회, 망초, 원화, 대극, 감수, 초오, 상륙, 건칠, 오공, 사향, 마전자, 맹충, 견우자, 과체, 아출, 옹황, 비상, 파두, 조각, 여로, 수은, 반묘, 경분, 섬수, 삼릉, 천오, 속수자, 수질

- 임신신용약

관중, 유황, 도인, 왕불유행, 동규자, 구맥, 반하, 대황, 대자석, 부자, 홍화, 익모초, 오령지, 건강, 육계, 지실, 목단피, 지각, 목통, 몰약, 괴각, 의이인

cf) 본초 채집 시기

종류	시기	해당본초	예외, 특이사항
근·근경	늦가을~이른 봄	방풍	반하·현호색·패모=여름
전초·가지·잎	무성한 시기 꽃 피기 전후	선학초, 자소엽, 익모초, 조구등	인진=봄, 비파엽=가을, 상엽=서리 내린 후
꽃	피기 직전 직후	금은화, 괴화 (선복화=핀 직후)	홍화=붉을 때, 송화분·포항=활짝 피었을 때
과실·종자	성숙기	충울자, 행인	청피·오매·지실 =미성숙기
수피	봄~여름	후박, 황백	-
근피	가을	목단피, 지골피	-

4. 藥物의 洗淨、加工

1) 異物質 제거

- ① 挑選: 이물질이나 곰팡이 등을 제거. (五靈脂, 乳香, 沒藥)
- ② 篩選: 性狀의 크기에 따라 여러 크기의 체나 그물로 잡질 제거.
(川烏, 半夏, 天南星, 白附子, 穿山甲, 鷄內金)
- ③ 風選: 서로 무게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바람으로 잡질 제거.
(浮萍, 車前子, 葶藶子, 青葙子, 蘿藦子)
- ④ 洗漂: 水洗하거나 빨아서 잡질 제거. (烏梅, 山茱萸, 大棗, 川貝母, 海藻, 昆布)

2) 非藥用부위 분리 제거

(1) 去莖・去根

- 去莖: 根을 사용하는 약물에서 비약용 부위인 殘莖 제거 (丹參, 龍膽, 白薇, 威靈仙, 續斷)
- 去根: 莖을 사용하는 약물에서 비약용 부위인 殘根 제거 (茵陳, 卷柏, 石斛)
- cf) 麻黃: 뿌리와 줄기 모두 사용하는데 서로 약성이 달라 구별이 필요

(2) 去枝梗: 과실, 꽃, 잎 등 사용하는 약물의 비약용 부위 枝梗 제거

(五味子, 蜀椒, 連翹, 夏枯草, 辛荑, 密蒙花, 桑葉, 側柏葉)

(3) 去皮殼

- ① 樹皮類 (肉桂, 厚朴, 杜仲, 黃柏)
- ② 根・根莖類 (桔梗, 知母, 黨參, 沙參, 芍藥)
- ③ 果實種子類 (使君子, 草果, 益智仁, 榧子, 白果, 桃仁, 杏仁)

(4) 去毛

- ① 刷去毛 (枇杷葉, 石葦)
- ② 燎去毛 (鹿茸)
- ③ 燙去毛 (狗脊, 骨碎補)
- ④ 挖去毛 (金櫻子)

(5) 去蘆: 根頭, 根莖, 葉基 등의 부위 제거

(人蔘, 黨參, 玄參, 結梗, 地榆, 防風, 續斷, 牛膝, 草烏, 茜草)

(6) 去心: 根類 약물의 木質部나 種子の 胚芽 제거

(麥門冬, 天門冬, 蓮子, 巴戟天, 地骨皮, 牡丹皮, 烏藥, 五加皮, 白鮮皮, 遠志)

cf) 임상에서 麥門冬은 특별히 제거하지 않으며 蓮子是 蓮子肉과 蓮子心을 구분

(7) 去核: 果實類 약물의 核(種子) 제거 (山茱萸)

(8) 去頭尾足翅: 動物類, 昆蟲類 약물의 頭尾, 足翅 제거 (蕲蛇, 烏梢蛇, 白花蛇, 蛤蚧, 斑貓, 虻蟲)

(9) 기타

- 去皮心 (巴豆)
- 去皮尖 (杏仁, 桃仁)

4) 飲片 切制: 물로 軟하게 한 후 切制하는 과정

- 목적: ① 湯劑에 넣기 쉽다 - 표면적 증가 ② 修治하기 쉽다 ③ 製劑하기 쉽다
④ 調劑와 저장하기 쉽다 ⑤ 감별하기 쉽다 - 내부조직 특성 드러남

(1) 飲片切制의 方法: 切制方法에는 切, 鎔, 刨, 剉, 劈 등이 있다.

- ① 切 : 飲片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② 鎔 : 犀角과 같은 動物角質類 약재에 응용
③ 刨 : 檀香, 松節 등과 같은 木質類의 藥材를 固定하여 刨刀로 깎아서 薄片으로 가공
④ 剉 : 粉末로 만드는 것으로 양이 적어 處方에 따라 가공할 경우 水牛角, 羚羊角 등에 활용
⑤ 劈 : 도끼류를 利用하여 動物骨格類 藥材나 木質類 藥材를 가공하는 방법

5. 引經藥

- 醫學啓源

순번	경맥	인경약
1	太陽經	羌活 ; 在下者 黃柏 / 小腸 膀胱也
2	陽明經	升麻 白芷 ; 在下者 石膏 / 胃 大腸也
3	少陽經	柴胡 ; 在下者 青皮 / 膽 三焦也
4	太陰經	白芍藥 / 脾 肺也
5	少陰經	知母 / 心 腎也
6	厥陰經	青皮 ; 在下者 柴胡 / 肝 包絡也

- 東垣十書 (시험에 따라 本草綱目, 珍珠囊 출전으로 나올 수 있으며 내용은 같음)

순번	경맥	인경약 (괄호는 본초강목에서 추가된 것)
1	手太陰肺經	升麻 蒼朮 葛根 桔梗 (白芷 蔥白)
2	手陽明大腸經	升麻 白芷 石膏
3	足陽明胃經	升麻 白芷 石膏 葛根
4	足太陰脾經	升麻 蒼朮 葛根 白芍藥
5	手少陰心經	獨活 細辛 黃連
6	手太陽小腸經	羌活 黃柏 藁本
7	足太陽膀胱經	羌活 黃柏
8	足少陰腎經	獨活 細辛 知母 桔梗 (肉桂)
9	手厥陰心包經	柴胡 牡丹皮
10	手少陽三焦經	柴胡 連翹 地骨皮(上) 青皮(中) 附子(下)
11	足少陽膽經	柴胡 青皮
12	足厥陰肝經	柴胡 青皮 川芎 吳茱萸

- 頭痛引經

두통필수 인경약	川芎	
태양두통	羌活, 蔓荊子	<p>眉すじから、後頭部に かけての痛み</p>  <p>この頭痛は 太陽 に属す</p> <p>太陽頭痛</p>
양명두통	白芷	<p>額を含む前頭部の痛み</p>  <p>この頭痛は 陽明 に属す</p> <p>陽明頭痛</p>
소양두통	柴胡	<p>側頭部</p>  <p>この頭痛は 少陽 に属す</p> <p>少陽頭痛</p>
태음두통	半夏, 蒼朮	<p>下から眼をやりでつき上げる ような痛み</p>  <p>この頭痛は 少陰 に属す</p> <p>少陰頭痛</p>
소음두통	細辛	<p>上から眼をこむような痛み</p>  <p>この頭痛は 太陰 に属す</p> <p>太陰頭痛</p>
궤음두통	吳茱萸	<p>額の最上が痛む。</p>  <p>この頭痛は 厥陰 に属す</p> <p>厥陰頭痛</p>
전정두통	藁本	

6. 七方, 十劑, 苦欲補寫 등

- 七方

칠방	病狀	藥物	處方	비고
大方	邪氣強盛 兼證	君二臣三佐九	대승기탕	下焦 重病치료
小方	邪氣經淺 兼無	君一臣二	소승기탕, 총시탕	上焦病치료
緩方	만성허약	不厭頻而小	사군자탕	補上治上
急方	急性질병	不厭頓而多	사역탕	補下治下 治救急 / 表證
奇方	단순病因	한 가지 또는 홀수	독삼탕	-
偶方	病因복잡	두 가지 또는 짝수	금궤신기환, 팔미	-
補方	病勢복잡, 만성병	合二三方爲一	시호계지탕, 대청룡탕	-

- 十劑

十劑 功效	본초류 (~지속 = ~之屬)	해당 처방
宣可去雍	강굴(生薑, 陳皮)지속	이진탕, 과채산
通可去滯	방기지속	십조탕
補可去弱	인삼, 양육(羊肉)지속	사군자탕
泄可去閉	정력(葶藶), 대황지속	대승기탕
輕可去實	마황, 갈근지속	마황탕
重可去怯	자석, 철분지속	주사안신환
澀可去脫	모려, 용골지속	금궤고정환, 양장탕
滑可去着	동규, 유피(榆根皮, 榆白皮)지속	규자산, 마자인환
燥可去濕	상백피, 적소두	이묘환
濕可去枯	백석영, 자석영	경옥고

- 오미보사 (苦欲補瀉)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감초] 以(辛)補之 [세신]	欲(散) 急食(辛)以(散)之 [천궁] 以(酸)瀉之 [적작약]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오미자] 以(鹹)補之 [택사]	欲(軟) 急食(鹹)而(軟)之 [망초] 以(甘)瀉之 [감초, 인삼, 황기]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백출] 以(甘)補之 [인삼]	欲(緩) 急食(甘)以(緩)之 [자감초] 以(苦)瀉之 [황련]
肺苦氣(逆)	急食(苦)以(泄)之 [가자] 以(酸)補之 [오미자]	欲(收) 急食(酸)以(收)之 [백작약] 以(辛)瀉之 [상백피]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황백, 지모] 以(苦)補之 [황백]	欲(堅) 急食(苦)以(堅)之 [지모] 以(鹹)瀉之 [택사]

- 방제

순번	방제명	방제구성
1	四君子湯 (補氣)	인삼 감초 백출 백복령 [인삼백백]
2	四物湯 (補血)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천당백숙]
3	八物湯	인삼 감초 백출 백복령 /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사군자탕+사물탕]
4	十全大補湯	인삼 감초 백출 백복령 /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 황기 육계
5	雙和湯	계지 작약 생강 감초 대조 /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 황기 [계지탕+사물탕+황기]
6	小建中湯	계지 작약 생강 감초 대조 / 교이
7	炙甘草湯	계지 생강 (炙)감초 대조 인삼 생지황 아교 맥문동 마자인 [계지탕-작약+인생아맥마]
8	小青龍湯	마황 계지 감초 작약 세신 건강 반하 오미자 [마황탕-행인+작세건반오]
9	五苓散	복령 저령 택사 백출 계지 [복합저택백계]
10	白虎湯	석고 지모 (炙)감초 갱미
11	黃連阿膠湯	황금 황련 계자황 아교 백작약 [황금련 계아작]
12	半夏瀉心湯	황련 황금 반하 건강 대조 / 인삼 감초
13	小柴胡湯	시호 황금 반하 생강 대조 / 인삼 감초
14	大柴胡湯	시호 황금 반하 생강 대조 / 작약 지실 대황
15	銀翹散	금은화 연교 형개 길경 우방자 박하 죽엽 (生)감초 노근 담두시 [은교는 형이 길에서 우박맞아 죽어도 생(生)까고 노담]
16	麻杏甘石湯	마황 행인 감초 석고
17	二陳湯	반하 진피 적복령 감초 생강
18	六君子湯	인삼 감초 백출 백복령 / 진피 반하 [사군자탕+이진탕]
19	補中益氣湯	인삼 감초 백출 / 당귀(身) 진피 승마 시호
20	六味地黃元	숙지황 산약 산수유 / 백복령 목단피 택사
21	八味地黃元	숙지황 산약 산수유 / 백복령 목단피 택사 / 부자 육계
22	平胃散	창출(8) 진피(6) 후박(4) 감초(2) + 생강 대조
23	對金飮子	진피(12) 후박(3) 창출(3) 감초(3) + 생강
24	生脈散	맥문동 인삼 오미자
25	三子養親湯	내복자 백개자 소자 [내복백개를쏘다]

7. 藥의 貯藏

1) 貯藏前의 처리

저장 전에는 반드시 약재의 蟲을 없애 건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약재는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한다. 花葉全草類 揮發性物質 油脂 등이 들어있는 것은 20~30℃의 온도에서 건조시키고, 根莖 根 樹皮 등은 30~60℃의 온도가 적당하다.

2) 低溫 및 防濕貯藏

한약재의 저장에 있어 저온저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보통 -5℃에서는 害蟲, 蟲卵과 抱子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약재의 변색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쉽게 충해를 받는 人蔘 黨參 白芷 當歸 郁李仁 胡桃仁 등은 陰涼 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저장해야 한다. 특히 當歸 川芎 白芷 등의 油類성분이 함유된 약물과 揮發性 또는 昇華性 성분이 함유된 牡丹皮 木香 등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함유된 성분이 발산되며 해충의 침범을 받기도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물은 일반적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10℃ 이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B1 등)가 발생될 수 있는 甘草, 決明子, 瓜婁仁, 龜板, 桃仁, 木瓜, 半夏, 柏子仁, 白扁豆, 檳榔子, 酸棗仁, 蓮子肉, 鬱金, 遠志, 肉豆蔻, 枳椇子, 巴豆, 杏仁, 紅花 등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cf) 2021년 기준 대한 약전 및 한약규격집 품목 중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설정 한약재 (21품목)

감초, 결명자, 과루인, 귀판, 도인, 목과, 반하, **백강잠**, 백자인, 백편두, 빈랑자, 산조인, 연자육, 울금, 원지,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홍화, **현호색**

온도가 높고 潮濕한 지방에서는 창고온도를 25℃ 이하로 하는데 특별히 통풍에 주의해야 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통풍에 주의해서 약물의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防濕에는 건조가 기본적인 조건이다. 약물이 적절하게 건조되어 있다면 미생물에 의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거래되는 약물들의 경우에 수분이 10~20% 정도 함유되고 있으므로, 여름철 특히 장마철의 溫多濕한 날씨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부패하기가 쉽다.

건조된 상태에서 이용되어지는 모든 약물은 수분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완전히 건조시킬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저장해야 한다. 또한 저장중인 약물도 항상 습도에 영향을 적게 받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수분함량은 12% 이하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창고의 습도는 20% 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부분의 일반 약재는 35℃ 이하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 避光貯藏

약재에 직사광선을 쏘이면 쉽게 변색되고 효능이 감소된다. 특히 花類 葉類는 주의를 요하는 약재이다. 예를 들면 식물색소를 함유한 紅花 紫草 등은 광선의 영향을 받아 약물이 퇴색되면서 약효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암실이나 陶製 항아리 또는 유리병에 넣어 저장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약물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것이 좋다.

4) 防蟲貯藏

약물이 충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충해는 온도 16~35℃ 사이, 상대습도 60% 이상, 약재 중 수분의 함량 11% 이상일 경우에 번식이 되므로 이것을 참작해야 한다. 따라서 蟲에 오염되었거나 좀벌레 등이 침범하기 쉬운 약물은 저장하기에 앞서 화학약품 처리나 60℃ 정도의 온도에서 烘乾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防蟲 저장을 위해서는 실내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되어야 하고, 햇빛의 직사를 피해야 하며, 적당한 용기에 넣어 冷暗處에 저장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5℃ 정도의 저온 저장, 12% 이하의 건조 상태 유지, 상대습도 20% 이하 유지 등이 가장 이상적인 저장 방법이 되며, 창고는 건조와 통풍에 주의해야만 원래 가지고 있는 효능과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5) 密閉貯藏

용기 내에서 밀폐시켜 햇빛과 수분, 충해, 방향성 성분의 휘발을 방지하는 약물저장법을 말한다. 그 예를 들면 熟地黃 胎盤 人蔘 冰片 黃精 枸杞子 麝香 硼砂 등이다. 개봉한 한약재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6) 經驗貯藏

① 두 가지의 약재를 동일한 곳에 저장하여 상호제약으로 변질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澤瀉와 牡丹皮로서 이들을 따로 각각 저장했을 때 澤瀉는 蟲蛀의 피해를 받고 牡丹皮는 退色이 된다.

② 한 종류의 약재는 다른 한 종류의 약재에 대하여 克制하므로 변질을 막는다. 예를 들면 花椒에는 脛味揮發性 물질이 있어서 海龍 海馬 등의 변질을 방지한다.

③ 劇毒 약재는 有毒한 약재와 독성이 없는 것과는 서로 저장을 달리해야 한다. 이것은 중독 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馬錢子 生烏頭 生半夏 蔓陀羅 등이다.

④ 芳香性 약재는 일반 약재와 보관을 분리해야 揮發性 물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薄荷 荊芥 丁香 肉桂 金銀花 등이다.

⑤ 粉性 肉質 香味濃 恬味가 많은 약재인 黨參 貝母 黃芪 當歸 白芷 등은 蟲이 잘생기므로 4월말에서 9월말까지 2~3회 방충작업을 해야 한다.

⑥ 신선한 약재인 生地黃 鮮蘆根 鮮石斛 生薑 등은 햇볕이 안 들고 濕氣가 있는 모래 속에 저장해야 한다.

7) 한약재의 六陳八新說

六陳藥이란 약재의 유통과정 중 약재의 변질이 없는 상태에서 약재가 지니고 있는 독성이나 자극성 등을 오래도록 저장했다가 사용함으로써 독성이나 자극성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그러나 약이 부패되거나 충해를 받아도 좋은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吳茱萸 橘皮(陳皮) 半夏 枳實 麻黃 狼毒 6종이 여기에 속하며, 香薷 神麵 木賊 大黃 莞花 荊芥 枳殼 등도 오래된 陳久品이 좋다고 한다.

八新藥은 약효물질이 발산되거나 소실이 될 수 있어 오래도록 저장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들을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花類에 속하는 약물로서 채취 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약효 물질이 發散되어 목적하는 약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蘇葉 薄荷葉 菊花 桃花 赤小豆 澤蘭 槐花 款冬花가 여기에 속하며, 이 8종 외에도 人蔘 白芷 當歸 澤瀉 黨參 沙參 獨活 枸杞子 防風 紅花 白梅花 櫻桃 등도 新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많은 약물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예외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